

	보 도 자 료	
---	----------------	---

사진 있음 사진 없음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배포 일시	2023. 11. 10 (금) 14:00		
담당 부서	공연장추진단TF	담당자	오세형 단장	02-760-9709	semonemo @kdac.or.kr
			이채현 주임	02-760-9708	chaihyun @kdac.or.kr

〈모두예술주간 2023 : 장애예술 매니페스토〉 성료

모두예술극장, 장애예술 담론의 장이 되다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모두예술극장, <모두예술주간 2023 : 장애예술 매니페스토> 성료
- 모두예술극장, 정책과 현장이 창조적으로 매개되는 문화예술 담론의 장으로서의 역할 제시
-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및 국내 학자·기획자·예술가들의 강연,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전시 등 20여개 다채로운 프로그램 성황리 마쳐.., ‘모두’가 즐겼던 담론의 장
- 11월 1일(수)~11월 12일(일), 12일동안 장애인, 비장애인 관람객 1,300 여 명 참여

- <모두예술주간 2023 : 장애예술 매니페스토> 성료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 이하 장문원)이 주최·주관하는 <모두예술주간 2023 : 장애예술 매니페스토>이 11월 1일(수)~11월 12일(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성황리 진행됐다.
 - 모두예술주간은 지난 10월 개관한 국내 첫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의 주요 공간에서 펼쳐졌다.
 - 접근성, 장애의 감각 등 장애예술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국내외 학자, 기획자, 예술가의 강연,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토크, 전시 등 20여 개의 프로그램과 모두를 환영한다는 테마 아래 공연장 팸투어 및 숙박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함께 선보였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포용하고 환대한 ‘모두 환영’ 테마

모두예술주간은 올해 행사를 찾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며 적극 환영하겠다는 의미로 ‘모두 환영’을 올해의 운영 테마로 선정하였다. 먼 거리

로 인해 행사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거주 장애예술인 및 장애 예술 활동가들에게 행사 방문 기간 중 ▲숙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모두 환영>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담당자 및 민간 예술가들의 활발한 참여와 네트워킹을 위한 ▲<모두 팸투어>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팸투어에 참여한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 문화재단 및 기관 담당자와 민간 예술가들은 장애예술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통찰력과 정보를 얻는 자리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모두 예술주간은 행사에서 다뤄진 담론이 현장에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성을 고려한 기획과 운영으로, 관람 장벽 견어내 프로그램별 이동지원, 휠체어석, 자막해설, 수어통역 제공 등으로 극장 방문 및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 내용을 가공한 ‘쉬운 텍스트’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였다. 더불어 매 프로그램 진행 전, 장애/비장애인이 서로를 포용하고 배려하며 관람하는 ‘모두를 위한 에티켓’ 공지를 통해 관람객들의 성숙한 관람 문화를 이끌어냈다.

□ 12일간 20여 개 프로그램, 연일 흥행 성공

- 모두예술주간 2023은 20세기 중반 일어난 새로운 예술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밝히는 글을 뜻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선언)라는 주제 아래 장애예술의 시의적절한 화두와 담론으로 많은 이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 행사의 시작은 젠더와 인종,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차이의 교차성을 가로지르며 장애예술 운동을 중심으로 활약한 아만다 카시아(휴스턴 대학교 캐서린 G. 맥거번 예술대학 조교수)가 열었다.
 - 11월 1일(수)에는 ▲강연 <접근성 비판 : 제도적 접근성에서 접근성 미학으로>가 진행됐고, 다음 날인 11월 2일(목)에는 ▲장애의 관점에서 전시와 박물관의 접근성에 중심을 둔 큐레이팅의 실천 사례에 대해 다룬

라운드테이블 <접근성을 미학적으로 전유하기 -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 진행돼 장애예술 및 접근성의 미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술가와 관련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이토 아사**(도쿄공업대학 미래인류연구센터 디렉터 겸『기억하는 몸』(현암사, 2020),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세, 2016)의 저자)는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를 예로 들며 세상을 보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연 <장애의 감각으로 존재한 적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와 ▲워크숍 <보이지 않는 나라를 디자인하기>를 진행했다.

- 허버트 조지 웰스의 SF 소설 『눈먼 자들의 나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해당 워크숍은 음식, 건축, 법, 예술, 의사소통 방식 등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시각을 제외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각 분야의 전문가,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이 그룹별 토론을 진행하며 새로운 감각의 나라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참가자 A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각의 바로미터를 벗어나 새롭게 감각의 세계를 재구성해봄으로써 편협한 시각과 제한된 감각의 시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 참여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11월 9일(목)에는 **캐리 샌달**(『소란스러운 몸 : 장애와 퍼포먼스』(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의 공동 편집자,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의 장애 및 인간 발달학과 교수, 장애예술 단체 네트워크 Bodies of Work의 디렉터)이 장애예술의 미학을 새롭게 탐색하는 ▲강연 <장애예술 미학의 명명과 주장>, ▲워크숍 <바라보지 않을 것, 바라보는 것, 바라볼 것 - 장애예술을 읽어내는 법>을 진행했다.

- 캐리샌달의 강연에서는 ‘장애예술의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담론에서, 장애예술 그 자체로 관심을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신체, 정신, 감각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급진적인 타자성을 주장하는 장애예술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발달(학습)장애인과의 협업과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포용적 예술

(Inclusive Arts)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었다. 앨리스 폭스(브라이튼 대학교 예술대학의 부학장), 한나 맥퍼슨(서섹스, 브라이튼, 베드포드셔 대학교 선임 연구원 겸 컨설턴트)이 참여해 한국 기획자, 예술가의 사례발표와 함께 토론을 나누는 ▲라운드테이블 <포용적 예술과 현대미술이 만나는 곳>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창작활동을 현대미술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들여다보았다.

- 이 외에도 모두예술극장 부대시설 내 진행된 장애예술 전시도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상적 ‘예술하기’를 시도한 <무리무리 아무리>, 작품과 공간, 아티스트와 관객,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짓거나 혹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모든 요소가 특정한 위계 없이 병렬로 놓이며 나란하게 관계 맺는 구조를 실험한 <나란나란> 전시도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는 이후 모두예술주간 2023 공식 누리집 (dawis.kr)을 통해 아카이빙 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제공이라는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모두예술주간 2023]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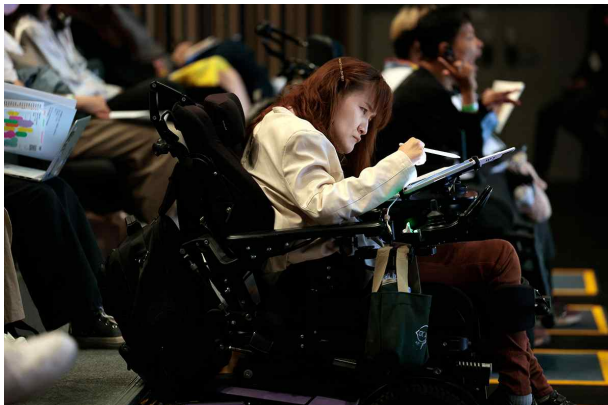
붙임 2 [모두예술주간 2023] 행사 사진



▲ 이토 아사 강연 사진



▲ 이토 아사 강연 관객 전경



▲ 강연 관객 전경



▲ 모두팸투어 진행 사진

붙임 3 [모두예술주간 2023] 행사 개요

□ 모두예술주간 2023 개요

행 사 명	국문명 : 모두예술주간 2023 영문명 : Disability Art Week in Seoul 2023
주 제	장애예술 매니페스토 (Disability Art Manifesto)
주 최 · 주 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행 사 기 간	2023. 11. 1(수)~ 11. 12(일)
행 사 장 소	모두예술극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프 로 그 램	강연,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토크, 전시
공 식 홈 페이지	https://dawis.kr
S N S 채널	www.instagram.com/dawis.kr

붙임 4 [모두예술주간 2023] 행사 소개

□ 모두예술주간 2023 프로그램내용

장애예술 매니페스토
<p>장애예술(Disability Art)과 접근성의 미학, 장애의 감각까지 장애예술을 둘러싼 주요 화두를 해외 전문가의 강연과 라운드테이블,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다룬다. 장애예술이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논의하며, 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구성된다.</p>
포용적 예술 2023
<p><포용적 예술> 프로젝트는 예술이라는 공간을 통해 계속해서 재정의 되는 예술의 본질과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예술 형태를 통해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연결을 촉진하는 포용적인 작업의 핵심 요소를 강조하며 존재 철학, 협업, 그리고 창의적 경청의 중요성을 제시한다.</p>
무리무리 아무리
<p>'장애인의 예술가되기' 또는 '장애인을 예술가로 만들기'가 아닌 '장애/비장애인의 예술하기'에 주목하여 그것의 실제 모습과 다양한 상을 탐색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장애/비장애 예술가들의 일상적 '예술하기'와 관련된 무리한 시도들을 나누는 사전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 이야기를 '무리'로 시각화, 의미화하는 전시, 워크숍, 토크를 진행한다.</p>
나란 나란
<p>예술공간이자 예술기획사인 팩토리2는 다양성, 소수성, 경계, 장애/비장애 등을 주제로 작업을 해온 기획자 3인(여혜진, 이솜이, 최태윤)과 함께 '나란 나란'이라는 팀을 이루어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했다. 전시, 워크숍, 영상,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나란 나란의 프로젝트는 작품과 공간, 아티스트와 관객,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짓기 또는 반대로 무너뜨리기를 의식하기보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특정한 위계 없이 병렬로 놓이며 나란하게 관계 맺는 구조를 실험한다.</p>

□ 모두예술주간 2023 프로그램 세부 내용

프로그램	내용	세부 내용	기획 및 참여
장애 예술 매니페스토	강연	접근성 비판 : 제도적 접근성에서 접근성 미학으로	아만다 카시아 휴스턴 대학교 캐서린 G. 맥거번 예술 대학 조교수
	라운드 테이블	접근성을 미학적으로 전유하기 -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	장애의 감각으로 존재한 적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	이토 아사 도쿄공업대학 미래인류연구센터 디렉터
	워크숍	보이지 않는 나라를 디자인하기	
	강연	장애예술 미학의 명명과 주장	캐리 샌달 Bodies of Work 공동 디렉터,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 장애 및 인간 발달학과 교수
워크숍	바라 보지 않을 것, 바라 보는 것, 바라 볼 것 - 장애예술을 읽어내는 법		
포용적 예술 2023	강연	포용적 예술의 다음 단계는 어디인가? 철학적 진로와 실천적 여정	앨리스 폭스 브라이트 대학교 예술대학 부학장, 로켓 아티스트 스튜디오 디렉터
	라운드 테이블	포용적 예술과 현대미술이 만나는 곳	
	워크숍	포용적 예술을 조력하는 창의적 방식	한나 맥퍼슨 포용적 예술 컨설턴트
무리무리 아무리	전시	혼자라면 무리지만	(기획)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토크	사는 것도 무리지만	(참여) 구은정, 이려진, 고혜실, 김은설, 김지영, 박소정, 박소희, 이재환, 정진호, 조동광
	워크숍	말하기엔 무리지만	
나란 나란	영상 작품	8cm의 단차	최태윤(작가), Nat Decker(자문)
	워크숍	멈출 수 없어	최태윤(기획), 서일영(안무가), 김환(화가, 자문)
	전시	점자 동시병렬 그림	박선영(그림), 이숨이(기획, 글)
	워크숍	작품을 감각하는 다중회로	여혜진(기획)
	전시	나란히 나란히	나란 나란(기획, 글), 최태윤(디자인)
	웹사이트	naran naran web	나란 나란 (기획, 제작)
모두 환영	부대행사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 활동가 숙박 지원 프로그램 먼 거리로 인해 행사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 활동가 대상 행사 방문기간 중 숙박 지원 프로그램	
모두 팸투어	부대행사	장애예술 관계자 네트워킹 및 극장 답사 팸투어 프로그램 지역 문화재단 및 지원 기관, 예술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예술 담당자 간의 원활한 네트워킹 도모 및 23년 10월 새롭게 개관한 장애예술 전용 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의 주요 공간을 안내하는 프로그램	